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임원자 외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13호

서기 2001년 4월 4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내 모습 훌훌벗고 함이 없이 하도록

여러분과 같이 도량에, 한 법좌에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손바닥만한 의자라 해도 그게 다보탑이 되니까요. 부처님이 앉으셨던, 지부처님으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이 다 하나로 응시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는 게 되고 같이 앉아 계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분들이나 안 보이는 분들이나 여기 반반이 섞여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믿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나가는 데 무척 걸림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하고, 설법을 할 때 내 모습은 몽땅 다 털어 버리고, 활짝 벗어서 부처님이 설법하셔야 됩니다. 모습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치운다면 법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는 공법으로 그냥 부처님 법이 설해지고, 아래로는 아래대로 따로 따로가 아니라 아래대로 차원이 있어서 벌어지고, 듣는 분이 다 계시고 응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옛날에 말을 했죠. 설법을 하는데 '이놈아 흥내만 내지 말고 웃을 활짝 벗고 설법을 해라. 네 말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가져다 버려야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깨우치지 못하면 모습도 가져요. 그러나 깨우치고 본다면 모습도 크죠. 허공을 다 찌러만끔 크죠. 어쨌든간에 여러분이 내면의 자불을 활용할 수 있고 자불로 하여금 일체만법을 들고 내신다면 참 정말이지 그건 극치적인,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활짝 벗고 함이 없이 해야 하고, 부처님도 함이 없이 하시는 거고 함이 없이 하셔야지 내가 했다 하고 내가 한다고 한다면 뭐가 그게 하는 겁니까. 잘 하든 못하든 여러분 앞에 앉았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다 날 때도 그냥 그 모습을 부처님이 끌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생명력이 태어날 때 벌써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라는 게 불성이거든요. 자불성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기 보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립니다.

을 놓으면서, '당신이 있는데 내가 뭘 바깥에 의지하겠어. 의지할 수 없지.' 하고 관하면서 한 열흘정도 지났습니다. 열흘정도 지나고 꿈에 저의 가슴에 큰 대못이 박혀 있었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 팍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가 보니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는 약을 놓은 지 오래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아파 와도 '당신이지.' 하면서 항상 제 안의 주인공과의 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지현장 스님께서 '보살님, 누워보세요.' 하셔서 제가 누웠더니 침으로 세포 마디 마디에 전부 콧수레고, 보살님 이렇게 혈이 안 돌게 어떻게 다녔습니까? 이제는 혈이 돌 겁니다. 내가 혈을 다 돌게끔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침을 맞는데 오천원이나가 앞으로 다섯 번만 더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도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고 그 이틀 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 몸 주위에 미처 떨어진 침을 손으로 쓸어 담으니 한 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대로 일어나서 정말 오열을 토하면서 울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당신이 이렇게 거룩하게 내 몸을 이끌어 가고 있구나. 내 안에 스승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구나.' 그 길로 화장실에 가 보니 제 얼굴에는 침 맞은 자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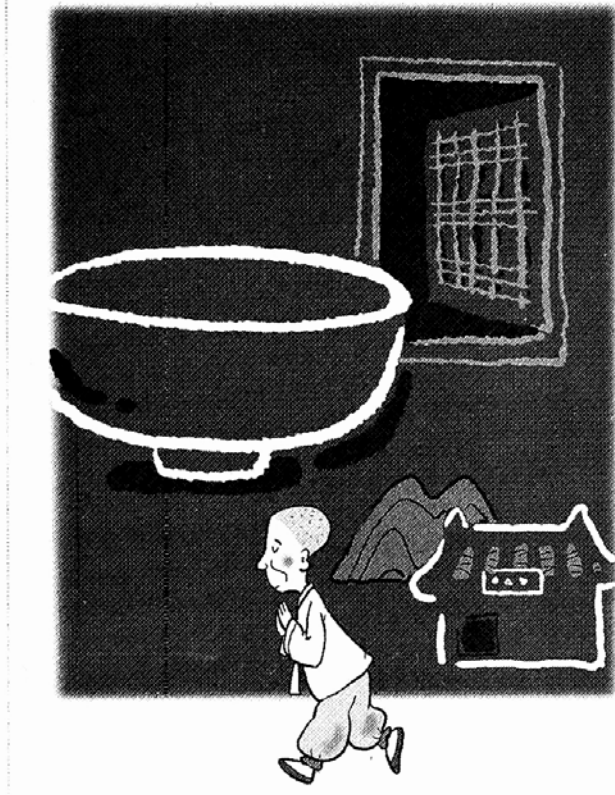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가 나오기 이전에 있던 데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영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딱 막혀서 차원을 벗겨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중노릇하기 쉽다고 하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참 쉽죠. 남이 주시는 옷 입고 남이 주는 것 먹고 산다고요. 신도들 물리치고 들어 가면은 편안히 앉아서 신다고 편안한 줄 아시죠? 아주 편안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면서,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밤이나 낮이나 나 아닌 나는 움죽거리야 하고 함이 없이 해야 하고 항상 여러분 생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그러고, 저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고, 그것을 말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알아야 하니까 한 군데를 믿고 한군데다 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 우습다고 하시지만 공부만 잘 하시면은 정말 이 나라도 없고 남의 나라도 없고, 내 나라도 따로 없지만 그래도 지구라는 이 후성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내 동네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우는 어린애를 더 먼저 안아서 먹을 걸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무난히 앉아 계시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살아가시는 거 살아 오신 거 생각해보시고 자기 주인공을 믿고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체험을 얻으신다면 정말 스님 아닌 스님이 되시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머리 깎는 것, 옷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가 다르죠. 그 다른 생활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중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추도식을 한다는데 그 부모의 영혼들은 가지를 앉았어요. 가지 않고 여기 다니는 아드님한테 따라 오셨더라고요. 거길 안가고, 하하하. 참 이거 흔란한 일이지만은 이제 사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에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그냥 저거하면은 별 문제인데, 그런 걸 보고 다 끝내고서 돌아서서 나갈 때 다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내 몸이 말이예요.

어떤 때는 다리 하나 옮겨 놓을 수가 없으리만큼 험한 때가 있어요. 너무 모르는 영혼들이라 어떻게 해야 이거 잘 쪼개서 잘 되시게끔 해 드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남의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구나. 어느 때에든 같이 살기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숨은 이유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이 그 중에도 기독교 나가고, 천주교 나가고 그럴 때 그 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하고 추도식으로 제사를 지내든지 주처는 너한테 있는 줄 알아라. 걸어놓은 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한테 있는 줄 알아라. 항상 너의 몸 따라서 주처는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조상이 바로 과거의 너다.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너니까 너 하나 속에 수많은 조상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안치가 되니까 거기다가 다 넣어라. 이것도 아마 신비적인 문제가 아닌가 보죠. 그렇게 안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몇 년전에 와서 병이 나서 죽게 됐다고 오거든요. 그렇게 일러 줬는데 안하고 말입니다. 돈이 들으니 못하나요, 왜 안해요, 글썽.

### 인정 베풀고 남 배려도

천도재를 지내러 오면 그 돈이 어디서 온 건가부터 보게 되는데, 어디서 급한 돈을 빌려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걸 모른다면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자 달라 뭐 달라 그 집은 더 죽게 되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그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돈은 도로 갖다 갖고 천도재를 지내게끔 해 주시라고 관해라. 그럼 조상님이 봐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당신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경찰서의 경찰 노릇을, 만약에 말한다면 형사 노릇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해 줬으니 형사노릇을 해도 모가 나지 않고 불붙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 드려서 되거든 해라. 돈이 들어오거든 해라.' 그러면 몇 달 있다가 돈이 벌었다고 와요. 그러면 그때 해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회사를 하거나 그래도 그 회사 하는데 기계 하나 하나가 살아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는가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입니다.

그저 자기와 더불어 같이 자문자답하듯 그렇게, 회사를 하더라도 기계하고도 말을 하면서 다 잘해나가는 역량을 가지셔야 돼요. 나무는 죽었지만 그 나무로 작품을 만들었다면 재산을 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살았어요. 무엇으로 만들어 놔도,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셔 놔도 그게 재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데 해도 여기에서 딱딱 제거가 되는 수가 많거든요. 이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한 번 유람을 해 보세요. 유람을 하시다 보면은 친구도 생기고 자불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또 인연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모두가 친구도 좋으니까요.

▲질문자2: 저는 93년도 2월 초부터 줄 지에 빚쟁이가 되어서 지금껏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런 고가 없었으면 제가 이 법을 어떻게 알리고 하지도 않았으며 제가 잘 나서 그리고 복이 많아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더러운 것 뭐이런 것 등등 해서 저는 분별심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와 친하지 않은 사람 너무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상이 높았고 정말 이 법을 몰랐을 때의 저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완전히 지금 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이 없었으면 제가 남이 필요한 줄을 몰랐고 더불어 살 줄을

### 자불 깨달아 일체만법 들이고 내라 산 사람 죽은 사람 둘 아니게 보세요

### 여러분 개개인속에 부처 있으니 안달복달 말고 중도있게 사세요

#### 못 깨쳤다면 모습 가짜

하어튼 조심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활짝, 내가 없이 설법을 할 수 있고 함이 없이 부처님이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보이는 분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분들도 들어야 할 대상이 약자약자하지 않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반반이, 하나는 오고 하나는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설법이 필요하고 또 함이 없이 실천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얘깁니다. 아리송하지 만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을 하십시오.

▲질문자1: 항상 우매한 저희들에게 자비로움으로 베풀어주시고 진리의 대대로 이끌어 주시는 스님의 은혜로움이 한량 없습니다. 저희들 무겁도록 짊어진 짐 이제 저희들 스스로 벗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기보다도 감사의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 항상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 전체를 체험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 모든 체험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 난 이후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약도 저는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의지하면서 저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볼라 하면 그냥 선행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했습니다. '그래! 어떠한 것도 놀라지 않는다. 당신이 있잖아. 죽으면 살리든 오직 당신밖에 없지.'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또 챙기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가 한 열흘 기량 지났는데 온 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쪽으로는 불안한 생각과 함께 그 불안한 생각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열어보니 가슴에도 침 맞은 자국이 그대로 빨갱게 드러나고 온 몸에 침 맞은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스님께서 내려 주신 법으로 저는 건강하게 제 안의 스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감사하게 살면서도 믿지 못해서 놓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없이 되살아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수행의 길이 없구나. 정말 끝없이... 한번 죽어 보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숙원인 부산지역의 불사가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거룩하신 이 가르침이 온 세상을 향해서 큰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여래의 장으로서 불사가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스님의 마음을 한자락 부락드림과 합니다.

▲스님: 여러분한테 한마디 더 보충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냥 뿌리 내려 있지 어디 겁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은 피대가 돌지 않듯 그렇게 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돌리셔서 쓰시기 바라고 또 불사라는 것은 하겠다고 마음만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천천히, 팔리 뛰지도 말고 느리게도 뛰지 말고 정도껏 정도로 뛰라는 얘깁니다. 절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달복달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자불이 있다고 볼까.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자불이 다 계신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한 그릇에 숟가락을 꽂아서 한 숟가락씩 먹어도 왜 웃고 먹을 수 있는가? 왜 즐겁게 먹을 수 있는가는 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울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한 그릇에다 숟가락을 꽂아 놓고 먹는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밥의 웃음이 나는 것은, 잠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남의 마음을 알려면 남의 고생하는 고통 알려면 별 짓을 다 해 봐야 되는 거죠. 누구냐가 다 그렇습니다. 중노릇을 하는 그런 차원도 스스로서 자기가 해서 자기가 그 차원의 진의를 밝히는 거지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진짜로 남의 것을 훔쳐 먹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아주 강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악 쓰고 화내고 온통 남을 섬실하게 하는 것이 지옥문에 도달하느니라. 그게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차원에 의해서 어디를 간다. 등수가 올라간다면 이런 것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도.

#### 사악하면 고생길 열려

남의 뺨을 한 때 때렸으면 어느 뎡가 꼭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차원까지 가지 못하면 자기 은사라도 아주 심하게 다루는 데로 보내 거든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해서는 그러고 태어나게 하거든요. 바로 거기서 태어나게 해서 고생을 진탕하게 해서 완전히 자기 마음이 죽어야 그 때 당기죠. 이것은 알지 못하거나 진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죽으로 아무리 해도 안으로 사악한 게 있으면 그냥 바깥으로 하염없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한 발짝씩만 반 발짝도 거기에 들어서

지 못하죠.

우리가 그럼 착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착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 가거든요. 좀 미련스럽다 하더라도 말이예요. 미련스럽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악하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데 마음은 착하다. 과거에 살던 업으로 인해 지금 현재에 그렇게 산다면요 다음에는 그렇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요 다음 생애는 권리도 좀 갖게 하고 부모, 자식 인연들도 잘 만나 살게 해서 어떻게 사나 그것을 또 참작하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말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죽어도 내가 하는 거고 살 때도 내가 하는 거다. 이 형성시킨 모습이 너무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움직여지고 사는데 너무나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간단히 앞서의 업이 덩어리가 있다 해도 빨리 빨리 제거가 되지만 그것 하나로 인해서 그 차원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만반이 없이 만나서 통해야 일체 부처님하고도 전부 통하게 되어 있어야. 내 부처하고 통해야 각급의 부처님하고 통할 수 있고 하다 못해 지신, 용신 뭐 허공신과도 모두 통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으로서의 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하나도 몰라 가지고는 거기 끼일 수가 없죠. 생각하면 중노릇하는 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밥을 먹으나 굶으나 누우나 자나 깨나 항상 어느 때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항상 왔다 갔는데 참 그 고생을 무척 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어떤 것은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자기